

동구와 친구들 가을 알밤을 찾아라

글 · 그림 김고운 | 출판사 천개의바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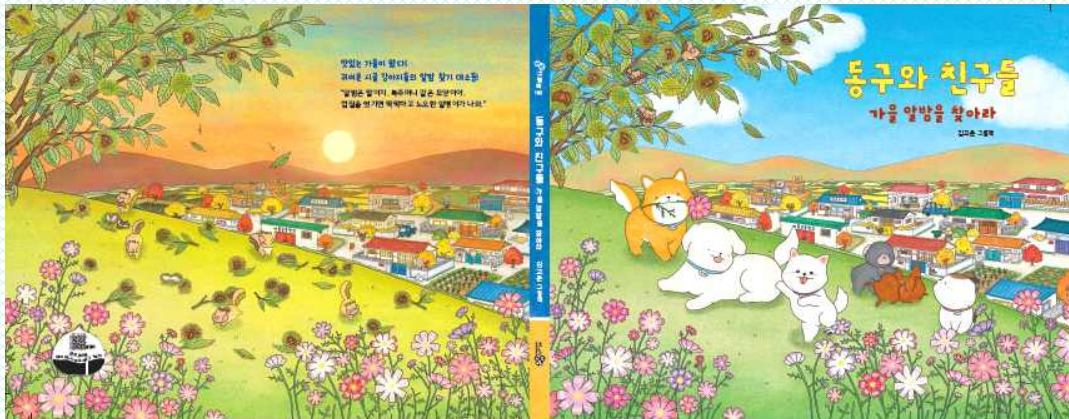
판형 273*196(양장) | 페이지 40 | 가격 16,800원

여름입니다. 할머니가 일찍 눈에 나가신 걸 보고 동구도 집을 나섭니다. 이웃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 논두렁 앞 정자로 달려갑니다. 거기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논일을 하다가 먹고 남긴 새참이 있습니다. 오늘 남은 건 수박이었지요. 강아지들은 조금 남은 수박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습니다. 아주 꿀맛이었지요. 하지만 너무 모자랐습니다. 더 먹고 싶단 생각이 간절했지요. 그때 해피가 경운기 할아버지네 밭에 가면 수박이 많다고 말합니다. 강아지들은 수박만 생각하며 부리나케 달렸지요. 과연 강아지들은 맛있는 수박을 찾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?

활동 목표

가을 농촌의 풍경과 추석 준비 과정을 살펴보고,
함께 돕는 마음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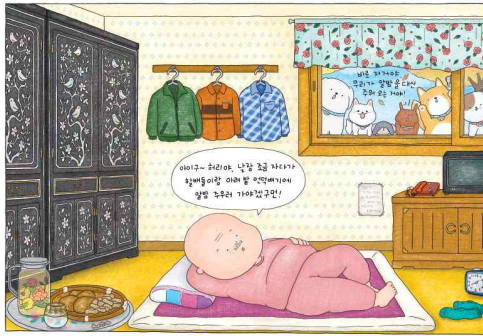
표지 맛보기



* 표지 속 동구와 친구들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?

* 밤송이를 본 적이 있나요?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해 보세요.

본문 삼키기



"우리가 할 일을 찾아 할머니,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거야."

1. 동구와 친구들은 허리가 아픈 김씨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알밤을 찾았어요.
만약 나라면 어떤 일을 도와주고 싶은지 생각하고 써 보세요.

이야기 소화하기

* 동구와 친구들처럼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생각해 써 보세요.

* 우리 집에서는 추석에 무엇을 하나요? 명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소개해 보세요.
